조계종 어산종장 덕산 스님 고불법회 봉행

前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대덕스님 참석해 지정축하
금선암 대중 승보공양 올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의 조계종 어산종장 지정기념 고불법회가 봉행됐다. 10월 9일 금선암 극락보전에서 봉행된 이날 고불법회는 보배경, 자비경, 축복경 독송으로 시작됐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前 총무원장 원행 스님,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조계종 어장 인묵 스님, 여향 선원장 성찬 스님, 완주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 익산 정각사 일행 스님,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하유호 108산사순례단장, 송재면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오종근 전주불교연합회장, 안준아 금선암 신도회장 등 신행단체장들과 불자들이 참석해 덕산 스님의 어산종장 지정을 축하했다.

금선암 사부대중은 이날 참석한 스님들께 존경의 의미를 담아 작은 선물을 스님들께 대중공양했다. 또 포교원력을 실천하고 있는 김덕순 포교사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은 고유문을 통해 "비구 덕산이 내는 소리는 육근을 조화롭게 만드는 아름다운 하늘소리이다. 종단에서도 덕산의 깊은 내력을 알고 조계종 어산종장으로 지정했다" 고 덕산 스님을 칭송했다.

스님은 이어 "덕산 스님은 부끄럽다며 스스로 낮추었지만 후학과 종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깊은 원력과 신심을 잘 알고 있다"며 "금선암에는 경사스런 일이다. 덕산 스님이 세운 원력이 물러나지 않는다. 이 법석에 참석하신 불자들과 모든 생명존재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고루 나누어 드리고자한다"고 부처님 전에 고했다.

덕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금선암 중창주 스님과 무형문화재 일응 스님, 스승이신 인묵 스님 덕분에 오늘의 자리가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를 사명감을 느낀다. 지역불교발전은 물론 불교의 사회화, 현대화, 대중화와 지역불교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어산종장으로 지정된 덕산 스님(사진 왼쪽)을 조계종 前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축하하고 있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약한 교세에 비해 강점을 가진 어산 범패분야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덕산 스님께서 놓아주었다"며 "덕산 스님의 어산종장 지정을 17교구 사부대중과 함께 축하하며 앞으로 17교구 차원에서 어산 전문스님 양성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여향선원 선원장 성찬 스님은 축사에서 "염불은 찬불을 뜻하고 찬불은 공덕모으고 쌓아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며 깨달음을 얻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며 "이러한 뜻을 알고 꾸준히 정진해온 덕산 스님의 어산종장 지정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안준아 금선암 신도회장은 "늘 함께 해왔던 덕산 스님의 공덕을 미쳐 모르고 잘 모시지 못한 점이 아쉽다. 소중한 자리에 참석해주신 스님들과 신도단체장 및 신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십선계 잘 지켜나가는 불자들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원행 스님은 법문에서 "금선암은 오랫동안 덕산 스님과 함께 십선계 실천운동을 하는 도량으로 알고있다"며 "종단에서 군장병들에게 내리는 십계는 출가사미에게 주는 것으로 맞지않다 여기고 총무원장 취임 후 십선계로 바꾸게 했다"고 총무원장 재직 중 일화를 소개했다.

스님은 이어 "금산사 방등계단은 사부대중이 평등하게 계를 수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곳으로 오랫동안 이곳에서 십선계를 수지했다. 〈천수경〉의 십악참회를 반대로 하면을 바로 십선이 된다"며 "〈미륵삼부경〉에 미륵부처님은 중생들이 십선법을 행할 때 사바세계에 나투신다고 했다. 앞으로도 십선계를 수지하고 실천하는 불자들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안동장애인서포터즈 가을 나들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도륜)은 10월 12일 복지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울진 일대로 가을여행을 떠났다. '2022년 자원봉사자와 함께 가을 바람 맞으러!' 를 주제로 열린 이번 여행에서는 13개 단체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다.

안동장애인복지관 측은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복지관 운영에 큰 힘이 된다며, 이번 가을 여행이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대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달빛내륙철도 조기착공 기원

해인사 10월 6일
국민힐링 달빛 콘서트 봉행



법보종찰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는 10월 6일 해인사 경내에서 달빛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염원하는 국민힐링 달빛 콘서트를 개최했다.

달빛내륙철도는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에서 이름을 딴 철도로 동서 화합과 문화 관광의 교류를 상징한다.

이날 콘서트에는 해인사 방장 원각스님을 비롯해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총무국장 진각 스님 등 대중스님들과 주호영 김정호 김기현 정희용 국회의원,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윤철 합천군수, 이종화 대구경제부시장, 구인모 거창군수, 이남철 고령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조삼술 합천군의회의장, 김성우 성주군의회의장, 가수 최성수, 주현미, 웅산, 임태경 등 2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해인사 포교국장 승우스님의 사회로 주지 스님 인사, 각 단체장 축사, 해인사 홍보영상 상영,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됐다.

주지 현문 스님은 "오늘 콘서트는 달빛내륙철도의 조기착공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가을밤 달빛이 어우러지는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감사하다. 오늘 모인 마음으로 내륙철도가 조기 착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콘서트로 많은 이들이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 사회가 밝아지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불교성지 해인사에서 열린 콘서트가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며 "내륙철도 조기 착공으로 동서화합 기회가 열리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한편, 해인사 일원에서는 10월 31일까지 개산 1220주년 기념 국화전이 진행되며, 10월 21~22일 제62회 해인사 보살계 수계법회, 10월 21일 학사대 최치원상 제막이 열린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원 정법사, 제1회 역대조사 다례재

창건 110주년… 만발공양도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주지 광우)는 10월 8일 정법사 만불전에서 창건 110주년 및 제1회 역대조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1부 다례재는 △나발 헌향 위패 봉안 △개식 △삼귀의 △영축다도회 육법공양 △조사 헌다 △헌화 △다례 시연 △주지스님 봉행사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다례재 후에는 제9탄약창 장병들에게 500만 원의 성금이 전달됐으며, 분다리카 합창단의 축가로 마무리 됐다. 다례재에서 전달된 장학금은 매월 정법사 신도들이 다라니기도로 모은 것으로 제9탄약창 장병들의 건강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2부 문화행사는 루체현악앙상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비건버거 등이 선보인 만발공양, 사홍서원으로 회향됐다. 이어 참가대중들은 정법사 전시장에 마련된 〈발우, 사발〉 展을 둘러보았다.

광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정법사는 부처님 가르침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이며,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곳"이라며 "앞으로 외로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곳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우 스님은 이어 "오늘 다례재와 함께 진행된 만발공양은 우리의 음식을 살피고, 지구 환경도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며 "우리 마음속 밝은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정법 촛불 하나가 수천 수만의 사람들에게 환하게 밝혀지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창원불교연합회장 정인 스님은 축사를 통해 "스님과 사부대중 모두 함께 탁마하고 공부하는 인연이 된 것 같다"며 "오늘을 계기로 신도대중들이 열심히 정진하고 정법사가 더욱 더 대가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통도사 율원장 덕문 스님은 축사에서 "전통과 역사를 지켜가는 것은 소중한 일"이라며 "정법으로 수행하고 교화하는 스님들의 공덕과 가르침을 잊지 않고 계속이어 가자. 첫 다례재와 만발공양의 의미를 살려 발전시켜나가자"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정관암, 불감 점안·제막법회

10월 9일 정관암 경내서 점안
사물놀이·떡매치기 등 공연도
"울산에도 불감 조성돼 기뻐"



울산 정관암(주지 대활)은 10월 9일 문수산 정관암 경내애서 불감 점안식을 봉행했다.

점안식에는 정관암 대활 스님,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백양사 산옹 스님, 화림사 대원 스님, 해남사 혜원 스님, 성불사 혜안 스님, 벽선암 혜진 스님, 원명사 무일 스님, 보은사 지륜 스님 등 대중스님들과 정갑윤 前 국회의원, 김영철 울주군의회의장,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송호남 태고종 울산교구 신도회장, 권상록 정광사 신도회장, 이태로 전의이씨 회장, 이상용 용하석재 대표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점안식 2부 타종, 개회, 삼귀의례, 반야심경, 내빈소개, 감사패 전달, 경과보고, 주지스님 인사말, 격려사(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백양사 산옹 스님), 축사, 축원(대원 스님), 3부 불감 제막, 헌화, 헌무(태평무), 사진촬영, 폐회로 진행됐다. 3부에 이어 사물놀이, 떡매치기 및 공연도 진행됐다.

주지 대활 스님은 "어느날 새벽 꿈속에서 불감 조성을 하게 됐고, 그 것이 승려의 의미 있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 조성하게 됐"며 "참고문헌 부재로 동분서주했다. 어려운 시기 불사에 동참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울산불교연합회회장 백양사 산옹 스님은 "내가 없는 너는 존재하지 않기에 더불어 한 법을 관하면 부처를 이룬다"며 "불감 탑 조성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찾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감사인사를 했다.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은 "순천 송광사 석조삼존여래불 불감 등이 있었지만, 자취를 감춘지 오래"라며 "울산에도 불감이 조성돼 기쁘게 생각한다. 불감 조성의 원력으로 정관암 신도들과 사부대중 가정에 건강과 가피가 함께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다연기획과 함께 2023 불교카렌다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독판 달력 제작 상담 및 카다로그가 필요하신 사찰은 문의 바랍니다.



봉축 행사 용품 및 현수막 제작
각종 불교 용품 판매합니다.



달력 종류 : 벽걸이 특호 / 벽걸이 대 / 벽걸이 소 / 탁상 / 미니 차량 / 메모 수첩

도서출판 다연기획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4길 14(조계사 옆) Tel. 02)723-4301 Fax. 02)723-4303 E-mail. lotus4301@daum.net 농협 053-12-162413 (남정숙)